

해피시니어 어워즈

2008 ~ 2011

시니어와 사회공헌, 행복한 동행

H a p p y

S e n i o r

A w a r d s

2 0 0 8

~

2 0 1 1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공익활동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시민과 민간비영리단체 및 사회적 경제 단체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열린 마당입니다. 또한,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중고령 시니어들의 사회공헌 활동을 지원하고,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경제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기쁨, 나누는 행복이 가득한 곳, 시니어사회공헌센터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해피시니어 어워즈 2008 ~ 2011

시니어와 사회공헌, 행복한 동행

인사말

꿈이 있기에 영원한 청춘. 해피시니어 윤석인 희망제작소 소장	5
-------------------------------------	---

특별기고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이정전 · 서울대 명예교수	6
-------------------------------	---

해피시니어 어워즈가 걸어온 길	12
------------------	----

아름다운 해피시니어

해피시니어 어워즈 수상자 이야기	16
-------------------	----

새로운 해피시니어를 말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시니어 리더, 해피시니어 이옥경 · 심사위원장	64
---------------------------------------	----

해피시니어의 새로운 전망 시니어사회공헌센터	66
---------------------------	----

사진으로 보는 해피시니어 어워즈	69
-------------------	----

꿈이 있기에 영원한 청춘, 해피시니어

100세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며
점점 늘어만 가는 인생 후반기의 시간들에 대해 염려합니다.

희망제작소는 6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에 주목하며
4060세대,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제2의 인생 설계를 함께 고민하면서
전문직 은퇴자들이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평생직장을 떠나 인생 제2막을 고민하던 분들이
희망제작소의 '행복설계아카데미'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이웃과 함께 하고 사회와 더불어 나누는
새롭고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해피시니어'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일이 좋은 일이 되어 행복하다는 분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꿈을 잃지 않는 영원한 청년들을
우리는 해피시니어라고 부릅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한 529명의 해피시니어는
오늘도 다양한 현장에서 자신의 인생 후반부를 설계하면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웃과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해피시니어 대열에 동참하여
더불어 배우고 나누고, 함께 베푸는 길을 찾는다면
100세 시대 여생에 대한 염려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생을 향한 축복이 늘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3월
희망제작소 소장



우리는 지금 행복한가

이정전 · 서울대 명예교수

우리 사회의 좌표: 높은 자살률, 낮은 출산율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를 넘으면서 우리나라는 20-50클럽에 가입하였다. 1인당 소득 2만 달러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이다.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경제대국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의 행복도는 선진국처럼 상당히 높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2008년 미국 발 세계 경제위기 직후 한 해를 빼고는 경제성장이 꾸준히 지속되었고 소득수준도 계속 높아졌는데,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높은 자살률은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열악한가를, 낮은 출산율은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요약해서 말해주는 징표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한국개발원(KDI)은 우리나라의 '삶의 질'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속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한국개발원이 개발한 지표에 따르면 삶의 질에서 우리나라는 OECD의 39개국 중에서 27위를 기록했다. 100명 중에서 70등 한 셈이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의 최근(2012년 10월)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우리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한 가지 특이한 현상은 50대의 행복도가 40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다는 점이다. 2006년 한국갤럽의 조사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행

복지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선진국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선진국에서 실시한 연령별 행복도 조사 결과를 보면, 건강에 별 문제가 없는 한 연령과 행복지수 사이의 관계는 대체로 아주 완만한 U자형을 보인다. 즉, 행복지수가 젊은 때에는 높고 40대 부근에서 가장 낮아지며 그 이후에는 완만하게 올라간다.

상식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청춘예찬이라는 말도 있듯이 젊은 시절에는 행복하고 늙으면 불행할 것 같다. 사실 노인들은 소득도 낮고 대부분 독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우, 노년기 행복지수가 40대 행복지수보다 높은 이유는 기대와 포부의 수준이 낮은 탓이라고 심리학자들은 풀이한다. 노인들은 낮은 소득과 독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노년기에는 목표와 성취 사이의 격차도 작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목표를 높게 잡기보다는 성취 가능한 범위로 낮게 잡는다. 노인들은 포부와 욕심을 줄이고 인생을 더 많이 즐기려고 노력한다. 물론, 행복한 사람들이 대체로 오래 살기 때문에 노인들의 행복도가 다른 연령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어쨌든 이런 얘기들은 선진국에서나 통하는 얘기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동을 겪은 나라는 없다. 50대의 행복지수가 40대에 비해서 낮은 이유는, 대체로 50대에 자녀들을 출가시키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새삼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이 연령대에 퇴직이나 은퇴문제로 직장생활이 가장 불안정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무래도 노인들은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옛날 노인들과는 달리 오늘날 우리나라 노인들은 사회적 존경은커녕 구박받기 일쑤고, 경제적으로도 쪼들리고 있다. 이래저래 우리나라 노인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

행복의 역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의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의 정도도 높다는 것이다. 삶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높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월 소득 500만 원 이상의 계층에서는

38.3%인 반면, 200만 원 이하 계층에서는 16%에 불과하였다. 이 결과 역시 선진국의 경우와 다르다.

지난 반세기에 걸친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국민의 행복지수는 높아지지 않았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 1인당 국민소득이 7배나 늘어났음에도 일본 국민의 행복지수는 제자리걸음을 하였다. 이런 현상이 선진국에서 일관성 있게 관찰되면서 이른바 ‘행복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왔다. 즉, 1인당 국민소득의 수준이 대략 2만 달러에 이를 때까지는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행복지수도 가파르게 높아지지만, 일단 2만 달러 수준을 넘어서면 그 다음부터는 소득수준 향상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가 서서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소득수준과 행복에 관한 그간의 많은 연구결과들을 종합해본 어느 학자에 의하면, 행복에 미치는 경제성장의 약발이 매우 큰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급격하게 감소하는 양태를 보인다고 한다. 그는 이런 현상을 ‘경제성장 효용체감’이라고 불렀다. 국민의 행복지수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지수도 소득수준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제 선진국 문턱을 넘어선 우리나라도 행복의 역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단계에 와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 대부분이 행복의 역설을 그리 실감나게 느끼지 못한다.

왜 그럴까? 비록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대에 진입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워낙 커서 국민의 대부분이 아직도 먹고사는 문제에서 크게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행복의 역설은 우리나라에서 오직 소수의 부유층, 즉 3인 가족 기준으로 연봉 7,8천만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고소득계층의 경우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행복도는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 우리 국민의 행복지수를 전반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저소득계층의 경제문제를 해결해주어야 한다.

요즘 정치권은 경제 민주화 구호로 시끄럽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지를 놓고 말이 많지만, 결국 그 핵심은 빈부격차 완화다. 어차피 양극화의 해소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정치권이

전정 경제 민주화를 이루려 한다면, 우리나라 중·저소득계층의 소득수준을 전반적으로 높이는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여기에는 중·저소득계층의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방안이 필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비록 아직까지는 그리 실감이 나지 않지만,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행복의 역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미 그 징후가 도처에서 엿보인다. 과거에는 돈만 있으면 행복은 저절로 굴러들어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한 굳이 행복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최소한 정치권에서는 그랬다. 행복이라는 말은 단지 드라마나 연애소설에서나 나올 뿐이었다. 근래 우리 정치권이 국민의 행복을 주된 화두로 삼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것인가? 행복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과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이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예쁜 옷을 입으며,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 춤추고 노래하면 우리는 행복해지는데 이런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있는 행복이다. 그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혹은 돈으로 사기 어려운 행복도 있는데, 행복 전문가들이 가장 빈번히 꼽는 것은 크게 세 가지다. 화목한 가정, 좋은 인간관계,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다. 참된 사랑이나 우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다. 돈에 팔린 사랑이나 우정은 이미 사랑도 우정도 아니다.

돈벌이는 안 되지만 보람 있는 일들은 많다. 우리나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건강 다음으로 가족관계를 행복의 가장 큰 원천으로 꼽았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인간관계’와 ‘보람 있는 일거리’가 중요해진다. 과거에는 각종 자생적 공동체들이 좋은 인간관계와 보람 있는 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였다. 옛날에는 친척이나 이웃들이 아이 돌보기를 맡아주었지만, 지금

은 기업이나 정부가 맡고 있다. 옛날에는 지역공동체가 범죄예방에 큰 역할을 하였지만, 오늘날 범죄 퇴치는 전적으로 정부의 일로 치부되고 있다. 옛날에는 친척들이나 마을 사람들이 오손도손 모여서 김치를 담그면서 정을 주고받았지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형 마켓에서 김치를 사먹고 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동창회 활동도 시들하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각종 자생적 공동체들이 시장이나 정부에 의해서 밀려나 사라지는 예를 들자면 끝도 한도 없다. 그러나 앞으로 초저성장시대,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오면 다양한 자생적 공동체들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가운데가 짝 찬 사회를 만들어야

국민의 행복에는 돈벌이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보람 있는 일거리’도 중요하다. 앞으로는 이런 일거리의 중요성이 더욱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노령화가 빨라지면서 할 일 없이 소일하는 노인들로 우리 사회가 넘쳐날 것이다. 둘째, 은퇴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면서 시장의 경쟁에서 밀려나는 중년 인재들도 증가할 것이다. 셋째,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돈보다는 여가를 더 많이 가지려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다.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보람 있는 일거리가 절실하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적합한 활동들이 매우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자기 스스로 옷 만들기, 자기 집 수리, 가구 만들기, 정원 가꾸기, 빵 만들기, 통조림 만들기 등 다양한 DIY(Do It Yourself)가 있다. DIY는 그 자체가 즐겁기도 하지만,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자급자족하고 남은 것을 판매함으로써 돈을 벌 기회도 준다. 학자들은 이와 같이 자신이 사용할 물건을 스스로 만들기, 판매하거나 교환할 수제 상품 만들기, 유용한 기술습득 활동에 참여하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하나로 묶어서 ‘자가 조달(self-providing)’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DIY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

이라고 한다.¹

선진국에서는 자가 조달 중에서도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자급자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활발한 활동이 도시농업이다. 아파트가 뽁뽁이 들어선 대도시의 작은 공간에서 유기농법을 이용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키우는 운동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농업이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국민에게 보람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도시농업 육성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이미 150여 년 전에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시장의 끝없는 팽창이 각종 자생적 공동체들을 말려버린 결과 사회가 모래알처럼 흩어진 삭막한 사회가 될 것’임을 예언하였다. ‘가운데가 텅 빈 사회’가 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소득수준의 향상만으로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좋은 인간관계와 보람 있는 일거리를 풍부하게 제공하는 자생적 공동체로 ‘가운데가 꽉 찬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행복지수를 끌어올리는 길이다.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는 노인들에게 ‘좋은 인간관계’와 ‘보람 있는 일거리’를 제공하는 자생적 공동체들이 더욱 많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1 <제3의 경제학> 줄리엣 B. 쇼어 저, 2011 위즈덤하우스



해피시니어 어워즈가 걸어온 길



희망제작소는 2008년부터 ‘인생후반전을 사회공헌활동으로 엮어낸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자 매년 해피시니어 어워즈를 마련하여 시상하고 있다.

해피시니어 어워즈 심사기준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수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최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되도록 각 부문 전문가 5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위원 전원합의 원칙 하에 후보자의 최근 수년간 공적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하며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참신하고 새로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사회혁신성 등을 심사한다.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조사 및 검증,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해피시니어 어워즈 시상내역

· 희망씨앗상

스스로 새로운 NPO(비영리단체 Non-Profit Organization)를 설립해, 사회변화를 이끌고 공익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니어 또는 유형의 NPO 설립뿐만 아니라 공익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새롭게 제안 및 운영하고 있는 시니어

· 새삶개척상

퇴직 후 새롭게 NPO 활동에 도전해, 보람된 인생후반전을 용기 있게 개척해 나가고 있는 시니어 또는 퇴직 후 지역에 정착해 살면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는 시니어

· 행복나눔상

퇴직 후 오랜 기간 헌신적으로 사회에 봉사하며 묵묵히 이웃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는 시니어

해피시니어 어워즈 연혁

- | | |
|-------------|--|
| 2006.11.20 | · 희망제작소, 대한생명 전문직 퇴직자 NPO 참여를 위한
사회공헌사업 '해피시니어' 프로젝트 협약 |
| 2007.11.29 | · 2007 해피시니어 심포지엄 개최
'중고령 퇴직자의 일의 의미와 사회적 공헌활동' |
| 2008.11.25 | · 해피시니어 2주년 기념행사 '시니어 파워, NPO 세상과 만나다'
· 2008 해피시니어 어워즈 시상식 개최
희망씨앗상 서재경, 새삶개척상 서병수, 행복나눔상 송래형 |
| 2009. 12.16 | · 2009 해피시니어 어워즈 시상식 개최
희망씨앗상 한석규 · 박영규, 새삶개척상 윤종태, 행복나눔상 김대철 |
| 2010.12.15 | · 2010 해피시니어 어워즈 시상식 개최
희망씨앗상 권병현, 새삶개척상 박병창, 행복나눔상 손홍식 |
| 2011.12.14 | · 2011 해피시니어 어워즈 시상식 개최
희망씨앗상 라영수, 새삶개척상 김정우, 행복나눔상 남충일 |



아름다운 해피시니어

해피시니어 어워즈 수상자 이야기



2008년

제1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희망씨앗상 서재경



지방대학생을 위해 전국 각지에 무료 취업아카데미를 개설했으며, 현재는 아름다운서당(구,영리더스 아카데미)대표와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희망씨앗들을 키워냅니다

풍부한 삶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

‘영리더스 아카데미’는 서재경 씨가 사회경험이 풍부한 주위의 현역, 퇴직 시니어들과 함께 지방 대학생들에게 참된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감성 등을 전수하고 있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업 실무뿐 아니라 인문학 강좌 200시간, 봉사활동 100시간이 필수 교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액 무료로 운영된다.

전라남도 목포 출신인 서재경 씨는 수도권 도시들에 비해 다소 낙후된 고향에

대해 늘 안타까움과 부채감을 동시에 느꼈다고 한다. 그래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하던 중 ‘인재양성’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 나아가 학벌,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소외된 ‘지방 대학생’ 문제에까지 관심이 미치게 되었다.

시니어들이 반평생 동안 얻어낸 생생한 경험과 지식들을 문서화하거나 누군가에게 전수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마찬가지로 실무 지식을 습득하면서 동시에 인생의 방향 설정에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전인적 교육기관 역시 드물다.

아카데미는 바로 이런 문제의식과 고민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아카데미에서 시니어들은 생산성 없는 불모의 존재가 아닌 ‘스승’으로서 거듭나고, 젊은 대학생들 역시 ‘방황하는 철부지’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 희망’으로 거듭난다.



'느닷없는' 불청객의 일일 참관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어느 토요일, 무턱대고 청강을 시도해 보았다. 영리터스 아카데미는 현재 서울, 광주, 대구, 제주 모두 네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지역 수업은 매주 토요일 대방동 남도학숙(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전라남도 출신 대학생들을 위한 기숙시설)에서 열린다.

아카데미의 학생들도 무료로 수업을 듣고 있는 터라, 수강료에 대한 부담은 덜 수 있었지만 따가운 눈총이 걱정되기는 했다. 그러나 걱정과 달리 대표학생을 따라 강의실에 들어가니 다들 반가운 인사로 맞이하며, 어떻게 알았는지 이름을 정겹게 불러준다.

알고 보니 서재경 씨가 학생들에게 메일로 인터뷰의 취지와 기자에 대한 소개를 했다고 한다. 작은 것 하나에도 마음을 써주는 모습, 학생들에게 먼저 동의

를 구하는 서재경 씨의 배려에서 단체의 모습, 단체의 마음이 느껴진다.

영리더스 아카데미의 모든 수업은 학생들의 발표로 이루어진다. 개인 과제는 물론이고, 조별 프로젝트를 발표할 때도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 약 10개월 동안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언변이 뛰어난 몇몇 학생들 위주로 돌아가는 대학의 발표수업 현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오전에는 인문학을 비롯해 각 학문의 기초를 다져주는 책을 다 함께 읽는다. 수업은 한 한생이 발제문을 준비해 오면 함께 읽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 날 첫 수업의 교재는 〈일본경제위기보고서〉. 생소한 용어들에 눈이 휘둥그레진 나와 달리 모두들 밑줄을 치며 열심히 메모하느라 바쁘다. 아마도 지난 8개월 동안 다져진 내공 덕분인 것 같았다.

양질의 도서를 읽는 것 외에도 영리더스 아카데미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다. 바로 다양한 현장에서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모의 수행해 보는 ‘기업 실무’ 시간이다. 팀 내 역할을 분담하는 것부터 프레젠테이션 과정에 이르기까지 학생들 스스로 해결해야만 한다.

서재경 씨의 말을 빌자면, ‘어느 분야로 가든지, 그 분야에서 주인공게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가 바로 ‘영리더’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이 수업 과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고, 그만큼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잡은 물고기’를 던져주며 하루빨리 성장하기를 재촉하는 식의 교육은 진정한 ‘리더’를 키워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덩치만 크고 실속은 없는 아이를 키워내는 것과 같다. ‘물고기 잡는 법’을 터득한 아이야말로 매사에 감사할 줄 알며, 내실이 튼튼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내일을 위해 뿌리는 작은 희망씨앗

서재경 씨는 지난 3년간 주말을 모두 아카데미에 반납했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다. 알 만한 기업의 임원 출신으로 은퇴 후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여기에 투자하고 있다. 이 아카데미를 지

속하는 이유에 대해 묻자, 그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무엇보다 ‘보람’이 있으니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반에는 학생을 모집하는 것부터 난관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어올 수 있었던 것은 저의 작은 노력으로 학생들이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먼 훗날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미래’라는 것은 사실 ‘오늘’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비록 그 결과가 내일, 혹은 더 먼 미래에 나타날지라도 ‘오늘 시작하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젊은이들의 지금 모습이 바로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바르게 살겠다고 각오를 하면 미래에는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것이라 믿어요. 아직까지는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작은 모임이지만, 저는 이 작은 텃밭에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좇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데, 무조건 그들을 비판만 할 일이 아닙니다. 물질을 숭배하고 무조건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현실이 알게 모르게 젊은이들의 가치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어른들의 잘못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들에게 바른 견해를, 바른 생각의 씨앗을 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 해피리포터 김미선, 〈2008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08년

제1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새삶개척상 서병수



잘 나가는 금융인에서 노인복지 전문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현재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사회공헌으로 연결된 제2의 길을 갈 수 있어
참 행복합니다

인생의 변곡점, IMF 금융위기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의 서병수 관장은 최근 책 한 권을 읽었다. 50세가 넘어 제2의 인생을 맞는 사람들은 새 분야를 개척해 인생을 이모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역설하는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다.

‘인생의 후반을 잉여인생으로 여기며 서글퍼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또 하나의 멋진 인생으로 맞이하라’는 문구를 읽으며 그는 남다른 감회를 느꼈다.



경제성장만이 최고의 가치였던 시절, 잘 나가는 금융인으로 사회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고 믿었던 서병수 씨는 IMF의 벼락이 자신과 사회를 강타할 줄은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다. 한 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배반감과 자괴감, 비관과 허무가 벼락의 잔재로 남았던 그때,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자원봉사였다. 우연한 기회에 종교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생생한 사회현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며, 세상은 승자나 성장, 경쟁만이 다가 아니란 것을 깨닫게 되었다. 굳게 믿었던 삶의 지향들이 무책임하게 깨져 버린 현실 속에서, 돌보고 나누고 함께 하는 사명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고 그는 말한다.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사는 이들이 있구나, 아직도 이런 낙후 지역이 있구나’ 싶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어요. 여전히 승승장구하는 인생이었다면 몰랐거나 혹은 외면했을 일이었던 거죠.”

공부가 필요했다. 마음으로 돕는다고 전부가 아니었다. 상담뿐 아니라, 봉사를 하기 위해서도 관련분야에 대한 배경지식이 절실했다. 서 관장은 대학원에

서 빈곤과 복지를 새로 공부했다. 그때 나이 53세. 늦었다고 주춤거린 적은 한번도 없었다. 석사 2년, 박사 5년, 총 7년간을 쉬지 않고 공부했다. <당신의 인생을 이모작하라>에서 제2인생의 '생존기술'로 강조한 공부가 서 관장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 셈이다.

대학원 공부를 마친 후에는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을 시작으로 자원봉사를 하며 복지실천 현장 공부에 들어섰다. 영등포노인종합복지관 서병수 관장의 인생 이모작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나는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제까지는 성공을 위하여, 나와 가족을 위하여 달려왔다면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위하여, 남과 이웃을 위해 달려가야죠. 저는 운이 참 좋은 편입니다. 나름 두 번째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자부하는데 그 길이 사회 환원으로 연결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우리 사회는 빠른 속도로 장수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하지만 은퇴 연령은 그에 반해 한없이 낮아지고 있다. 최근 은퇴 후의 삶이 가장 큰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이유다. 시니어들은 늘어나는데 참여할 곳이 없다.

그는 민관이 협동해서 시니어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학력, 경제력, 건강이 뛰어난 4060 신세대 시니어들은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최고의 인력이다. 그들의 탁월한 능력과 경험을 받아 안아 활용할 수 있는 일반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더 많이 늘어나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시니어들의 사회복지 서비스사업 취업률이 외국은 25%나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직은 미약하지만 우리나라도 점차 중·고령층의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율성입니다. 내가 직접 선택을 하고 실현해낸다면, 그만큼 자유의 폭이 넓어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가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테니까요.”

시니어들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 현장과 직업의 연결, 건강관리, 여가 활동 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노인복지관의 역할은 그래서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등포에는 3만 명의 노인이 있습니다. 그 중 7천 명이 넘는 노인들이 병을 앓고 있는 빈곤대상자입니다. 그러나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정작 4백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원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죠. 구청, 복지관 등 지역사회가 합심을 해서 이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 네트워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노인복지관 관장으로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임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서병수 씨는 앞으로도 꾸준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복지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개선시키고 정책의 수준을 높이는 성과도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한다. 사회발전이라는 큰 그릇에 담긴 쌀 한 톨의 존재가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다며 말을 맺은 서 관장이 살짝 쑥스러운 미소를 내어보였다.

성장과 복지가 나란히 손을 잡고 걸어가는 미래 사회를 향한 서병수 관장의 소망, 그 꿈이 실현될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

- the best 양인실, <2008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08년

제1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행복나눔상 송래형



국민연금을 종자돈으로 독거노인 돕기에 나선 기부전도사. 전남 땅끝마을로 귀농하여 자연과 벗 삼으며 전원생활을 하고 있으며, 은빛겨자씨 기금은 현재 10억 원이 넘는 기금이 모여 세상의 등불을 밝히고 있다.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입니다

강물 한 동이를 붓는 마음으로

은행잎이 도로를 가득 뒤덮은 늦가을 오후 송래형 씨와 인터뷰를 위해 아름다운재단을 찾았다. 웃음을 가득 띤 맑은 얼굴에서 곧은 품성이 느껴진다. 송래형 씨는 아름다운재단 ‘은빛겨자씨기금’의 최초 출연자이다. 그는 국민연금이 고갈될 위험에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좋은 제도와 재원이 사라지게 해서 안 된다.’는 생각에 만 60세가 되던 2003년 정년 퇴직과 함께 국민연금을 받게 되자 기금출연을 결심했다.

“연금 수령액의 절반 정도는 회사에서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때문에 이것은 제 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했지요. 평소 아름다운 재단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기금을 관리, 운영한다는 평을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믿고 맡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이렇게 미약한 힘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을까 싶어 망설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도도히 흐르는 한강물을 보고 있자니 ‘어리석고 부질없어도 강물 한 동이를 부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것이 의미 있지 않겠는가’라는 깨우침이 생기더군요.”

그는 단순히 은빛겨자씨기금의 종자돈을 내놓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후 본인의 국민연금을 전액 기부하기 시작했고, 주위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1% 나눔 운동’을 벌여 기금을 더욱 확장시켜 나갔다.

그의 꾸준한 노력과 열정 덕에 6년간 1만 명이 넘는 기부자들이 은빛겨자씨기금에 새로 동참했고, 어느새 기금총액은 6억 원을 넘어섰다. 많은 이들의 정성이 담긴 기금은 전액 홀로 사는 노인을 돕는 데 쓰이고 있다.

어머님을 생각하며 시작한 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를 못한 것이 너무 가슴에 맺혔어요.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찍 아버님을 여의고 어머님 혼자 저희 형제를 키우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셨어요. 하지만 장성한 이후에 사업이 계속 어려워서 어머님을 큰누님 댁에 모셨어요. 그리고는 끝내 저희 집에 모셔보지 못하고 임종을 맞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게 늘 가슴에 남아요. 그 날 이후 언제나 제 어머님을 돕는 심정으로 불우한 처지에 계신 노인들을 돕고 있습니다.”

기금의 명칭 가운데 ‘은빛’은 실버를, ‘겨자씨’는 기독교 윤리로 세상의 작은 씨앗이 부풀어 큰 열매를 맺는 나무로 커가는 것을 의미한다.

“불교도였던 어머니와 달리 저는 기독교도입니다만,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듯해요. 실제로 기금에 동참하고 있는 기부자 면면을 보면, 스님, 수녀, 목사, 유림,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등 매우 다양

합니다. 모두들 그저 낮은 곳을 지향하고 서로 소통하려 노력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이제 세상은 사람들이 나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언젠가는 내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믿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신뢰가 저절로 가네요.”



내내 차별했던 그가 ‘나눔’ 이야기를 시작하자 금세 상기되어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작년 10월에 제가 시신을 기증했다는 기사를 보고 어느 수감자가 편지를 보냈어요. 본인도 장기를 기증하고 포장마차 장사하면서 불우노인을 돕겠다고 하더군요. 참 고마웠지요. 앞으로 효의 개념을 바꾸어야 해요. 내 핏줄에만 연연하지 말고 내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효입니다.”

아름드리 희망나무로 자라난 은빛겨자씨

그는 요즘 매년 꾸준히 배분하는데도 기금이 다시 채워지는 기적을 확인하면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특히나 많은 초등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기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있어 하루하루가 즐겁다. 우리사회가 이러한 희망을 만드는 사람들로 인하여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는 경로우대대상(65세 이상)이 되어 대중교통 무료 탑승이 가능해진 뒤부터는 절약한 교통비를 모아 ‘티끌모아 태산기금’을 창안하여 불우한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다.

또 1999년에는 새 천년을 맞아 장기기증협회에 안구를 기증하기로 서약을 했

다. 좁은 땅에 봉분을 만드는 것에 반대하여 추념 식수심기 운동에 동참하였고, 아파트 층간 소음 줄이기 운동을 희망제작소 사회창안센터에 제안했다. 2006년에는 교통 분담금을 복지 기금으로 사용하자고 청원했다. 실로 놀라운 실천력이다.

언제나 나와 남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함께 하고 있음을 온 몸으로 실천하며 보여 준 송래형 씨. 이미 많은 행복을 누린 그이지만, 남은 인생의 후반기에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저는 보약 한재 먹지 않아도 참 건강합니다. 해로운 음식을 먹지 않고 좋은 공기 마시며 늘 자연과 가까이 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일관되게 실천하도록 늘 염두에 두고 살지요. 그렇게 나눔과 순환을 실천하며 살다가 때가 되면 자연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이 아닐까요?”

- 해피리포터 정인숙, <2008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해피시니어와 나

서재경

아름다운 서당 대표,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Q. 나에게 해피시니어 어워즈란?

은퇴는 한가로이 노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일선에서 물러나 후진을 양성하는 일에 뜻을 두고, 2005년 ‘아름다운서당’을 설립하여 운영하여 왔다. 주말을 모두 반납할 정도로 열정적으로 일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제자들이 발전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끼며, 미래를 향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 때, 제1회 해피시니어 어워즈의 영예가 주어졌다. 큰 격려가 되었다. 지금 하는 일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주었으며,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가 되기에 충분했다. 뜻을 세우고 그 일을 하는 동안, 주위의 평가에 그다지 마음을 기울이지는 않았지만, 소명의식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큰 힘이 된 것은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Q. 현재 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소감과 느낌, 삶에 끼친 영향은?

개인적이며 이기적으로 변해버린 젊은이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쳐야만 했다. 교육과정을 다듬어 적합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에게 공부하는 요령이 아닌 생각하는 능력,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했다.

한 클래스로 시작한 서당은 이제 서울·수원·경기·제주·탐라, 5개 아카데

미 6개 클래스로 확대되었다. 현재 공부하는 학생들을 포함하여 아름다운서당을 거쳐 간 학생은 300명이 넘는다. 이번에 2기를 모집하고 있는 수원아카데미에서는 신청수가 무려 170명을 넘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료를 앞둔 아름다운서당 졸업생들은 매년 고백하듯이 말한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1년 동안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배웠다고. 아름다운서당이 삶의 좋은 암묵지(暗默知)를 제공하는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 10년 후엔 더 많은 젊은이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꿈꾸며, 뜻을 같이 하는 많은 훌륭한 시니어들이 계시기에 가능하리라 믿는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미래인 젊은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는데 작은 씨앗이 되고 싶다. 아직은 몇몇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작은 모임이지만, 미래를 향해 작은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겠다고 다짐한다. ‘미래’는 언제나 ‘오늘’이 출발이므로.

Q. 시니어 혹은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말

사냥터를 떠난 시니어들 중에는 개인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부담이 비교적 가벼운 분들도 계신다. 이런 분들이 세상에 의미 있는 일, 나보다 남을 위하는 일,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 등에 여생을 바친다면 참으로 값진 성취감을 맛볼 수 있으리라.

인간은 상황 속에 던져진 존재라고 생각한다. 시니어들만이 갖고 있는 상황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2009년

제2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희망씨앗상 한석규



현재 희망도레미 이사 및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희망을 대출해드립니다

어떤 은행원 부인이 한자교습소를 열겠다며 소액대출(마이크로크레딧)을 신청했다. 남편이 은행 퇴직 후 사업에 손을 댔다 재산을 날렸다고 그간의 고생을 울음으로 터뜨렸다. 어떤 아주머니는 방앗간을 하다 안 되서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신청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장사가 될 것 같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대출을 거부해야만 했다.

희망제작소 교육 수료 후 시작한 소액대출 심사업무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건 이렇게 일일이 사람들에게 전화로 통보해주는 일이었다. 은행에 있을 때는 가부만 결제하면 되었는데 말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비로소 진짜 은행원으로서 사회와 소통한다는 생각이 들었

다. 내친김에 함께 교육을 받았던 대기업 CEO, 금융회사 임원 등 전문직 퇴직자들 12명과 의기투합해, ‘희망도레미’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었다. 지금은 여러 재단들과 MOU를 체결해 직접 현장실사도 다니고, 소액대출심사, 컨설팅을 계속하고 있다.

일감이 밀려들어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껏 이렇게 행복하게 일해 본 적이 없다. 세상이 새롭게 열리는 기분이다.

IMF 구제금융 사태 당시 사표를 내고 나서, 평생 몸담았던 은행이 합병돼서 간판이 없어지는 걸 보면서 정체성이 사라지는 것 같아 한동안 참 견디기 힘들었다. 은행원을 천직으로 여기며 살았었다. 월요일이면 ‘이번 주에는 어떤 새로운 고객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출근길이 그렇게 설렘 수가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퇴직 후 골프도 하고 등산도 실컷 다녔다. 출근 걱정 없이 술도 마시고, 손자 보는 재미에도 푹 빠져보고, 후배들이 주선해줘서 2년 정도는 어느 상장기업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하지만 허탈감이 사라지지 않았다.

어느 날 책상에 앉아 지난날을 돌이켜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만일 자서전을 쓴다면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내세울 수 있을까?’ 은행 서류에 묻혀 산 32년이라는 시간밖에 없었다. 직장과 가족을 제외하고 진정 남을 생각하며 살았던 적이 없었다.

남은 인생은 정말 남을 위해 봉사하며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때마침 지인의 소개로 희망제작소 ‘해피시니어’ 교육을 받게 되었고, 원하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요즘은 무척 할 일이 많아졌다. 희망도레미 일을 하는 틈틈이, 일주일에 두 번은 ‘필리핀 공동체’를 찾아 상담, 번역도 하고, 청소 같은 허드렛일도 하고 있다.

다시 매일매일 들뜬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오늘은 또 어떤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말이다.

— 해피리포터 정인숙, <2009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09년
제2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희망씨앗상 박영규



건설협동공동체 달팽이건설의 독자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준비하고 있다.

한 사람에게 한 채씩, 달팽이집을 지어드려요

나는 인생을 세 단계로 구분해 살려고 한다. 제1의 인생은 25세까지인데, 학교에서 교육받고 군대에서 훈련받는 등 내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나 제도에 의해 강요된 삶이다. 제2의 인생은 대졸 공채사원으로 입사해서 레미콘 회사 사장을 그만둔 50세까지 ‘눈칫밥과 스트레스의 25년’이라고 생각한다. 직장에서 치렀던 치열한 경쟁, 남편과 아버지 또는 자식으로서 역할, 선배와 상사의 위치에만 매여 있었다.

달팽이건설 입사는 ‘제3의 인생’의 시작이었다. 나이 50이 가까워오면서 지난 인생을 반추해 보았다. ‘언제가 가장 행복한 때였는가?’ 그렇게 얻은 결론이 ‘이웃과 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할 때’였다.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50세부터 75세까지 25년은 사회에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었다.

원래는 은퇴 후 홈스테이 NPO를 만들 계획이었다. 홈스테이 가정으로 32명의 아동을 위탁 관리해 보았기 때문이다. 입양아뿐 아니라 해외교포 2세나 3세 아이들도 홈스테이를 하여 모국을 익히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지인을 통해 건설협동공동체 형태의 회사인 달팽이건설에서 전문경영인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달팽이 건설은 모든 인력이 완비됐으나 회사운영 노하우를 가진 전문경영인이 없어 흑자도산을 맞곤 했다고 한다. 흔쾌히 상임이사직을 수락하고 회사에 참여했다. 주식회사 등록, 정관 확정, 창립총회를 일사천리로 처리했더니 사원들이 다들 놀라워했다.

‘달팽이건설’은 5가지 경영원칙이 있다.

첫째, 돈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과 가장 적게 받는 사람의 임금 차이가 ‘2배 반’을 넘지 않을 것. 둘째, 연말에 이익이 나면 34%만 주주들끼리 나눠 갖고 66%는 좋은 일에 기부할 것. 셋째, 형편이 딱한 사람이 ‘우리 집 좀 고쳐 달라’고 사정하면 눈 딱 감고 공사비를 깎아줄 것. 넷째, 기술자들 일당은 무슨 일이 있어도 1주일 안에 지불할 것. 다섯째, 이익을 10% 이상 남기지 않을 것.

이렇게 해서는 망하지 않을까? 이래 봐도 올해만 벌써 6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다. 주로 복지관이나 비영리단체 신축·증축·개보수 공사가 많은데, 40만 원짜리 개인주택 화장실 공사부터 3억 1500만 원짜리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까지 다양하다. 서울시가 펼치는 공익사업에 참여해, ‘단돈 3700만 원’을 받고 다 쓰러져가는 다가구주택 50가구를 고쳐준 적도 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양질의 집을 짓거나 개축할 것이다. 새 건축주에게 우리가 이미 시공한 건물의 주인과 맞대면을 하게 해 사전평가를 받을 예정이다. 서민주택을 짓고 친환경적으로 공사를 해도 얼마든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

— 해피리포터 정인숙, 〈2009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09년

제2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새삶개척상 윤종태



현재 아힘나 평화학교의 대외협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농업 경영인으로 활동 중이다.

은퇴한 당신, 동남아 대신 고향마을로 떠나라

혹시 ‘반갑습니다’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를 아는가? 금강산에 가면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그 가수가 바로 이곳 안성에 있는 ‘하나원’을 거쳐 남한에 정착했다.

우리 ‘아힘나 평화학교’에도 북에서 내려와 하나원을 거쳐 온 아이들이 많다. 제2의 고향인 하나원이 있는 안성시 삼죽면에서 이웃 어른들을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아 지내고 있다.

내가 나고 자란 곳도 바로 이 곳 삼죽면이다. 동네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 아이들에게 ‘삼죽 마을 역사알기’에 대해 수업도 하고, 동네 어른들과 함께 마을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마을잔치도 풍성하게 열었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아이들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김치도 주시고 아주 잘 지내고 있다.

아이들도 손수 만든 빈대떡을 들고 이웃 어르신을 찾아다닌 일, 풍산개 마을을 찾아가 풍산개와 뛰놀던 일, 매년 종중에서 지내는 조상님 제사에 참석해 어르신들과 고향의 향수를 느낀 일, 다민족 음식축제를 하며 음식을 나눈 일 등은 아마도 저 북녘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일 것이다.

아힘나 평화학교는 2005년에 개원했는데, 관공서나 지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협력을 구할 여력이 없었다. 내 고향 삼죽면에 이런 학교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경기도청과 교통연수원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살려서 알리미 역할을 자원했다. 공직생활 중에 안면을 익혀둔 시장, 문화원장, 면장, 이장 등 지역인사들을 찾아 적극 홍보한 덕에 후원하겠다는 분들이 부쩍 늘었다.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제도권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퇴직자들이 할 일이 참 많다. 은퇴 후에 혼자만 잘 살려고 동남아로 떠나면 안 된다. 해외로 나가는 한 사람의 건강한 노인이 열 사람의 노인을 감당할 수 있다. 노인이 노인 상담을 하고, 농어촌 일손 돕기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얼마든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다. 함께 나누며, 함께 잘 살아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다.

— 해피리포터 정인숙, 〈2009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09년

제2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행복나눔상 김대철



현재까지 현업에 종사하면서 매주 토요일 아름다운가게를 지키고 있으며, 아름다운가게 이사로 활동 중이다.

10억 모아서 봉사하려면 언제 하겠는가

한창 사업을 키워나갈 때 부동산도 있고 꽤 잘 살았는데도 ‘현금으로 10억 정도 생기면 그 다음부터 봉사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2000년에 잘 나가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 다행히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빠르게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그래도 빚이 아직 많이 남아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예전에 돈 있었을 때나 지금 없을 때나 사는 것은 별로 다를 게 없다. 지금 안 하면 못하겠다. 또 10억 모아서 봉사하려면 언제 하겠는가?’

그때 우연히 ‘아름다운가게’ 자원활동가 광고를 봤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데 마음이 끌렸다. 더구나 영업이라면 자신 있게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자

원했다. 한번 해보니 썩 괜찮은 일이었다. 그래서 회사직원들과 함께 나눔 행사도 열었다.

활동을 계속하다 보니 2007년부터는 아름다운가게 양재매장의 자원활동가 대표(점장)직함도 얻게 되었다. 매장에서 활동하는 40여 명 자원활동가의 형, 오빠, 친구, 동생 역할을 잘 해달라는 격려라고 생각하고 있다. 우연히 기회가 닿아 요즘은 강남구 자원봉사센터 등에서 중고등학생들과 예비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몰라야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나는 봉사활동은 적극 광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생각에 평소 친분이 있는 CEO들에게 권유해서 아름다운가게 행사도 함께 했다. CCTV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에는 ‘장비를 기부해라, 내가 설치하고 관리하겠다’고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작년부터 한 달에 한 군데씩, 제품을 기증받아 우리 회사 직원들이 여러 비영리단체에 설치하고 유지, 보수하고 있다. 하나씩 퍼지면서 광고효과도 있고 보람도 생겨 그 회사도 너무 좋아하고 우리 직원들도 뿌듯해했다. 지금은 다른 회사도 관심을 보이며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다. ‘아! 이런 식의 봉사도 가능하구나’ 하며 퍼져 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한 가지 일하면서 열 가지를 돌려받고 있다. 자원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저력도 사실은 이 때문이다. 사장이 이런 일 해도 회사가 더 잘 돌아가고, 몸과 마음도 건강해지고, 가족이 화목해지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이런 것들이 다 봉사활동으로 돌려받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도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것이다. 내일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

- 해피리포터 정인숙, <2009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해피시니어와 나

한석규

서울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센터장

Q. 나에게 해피시니어 어워즈란?

사실 퇴직 후에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사람이 느끼는 혀의 감각으로 흔히들 다섯 가지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달고(甘), 쓰고(苦), 맵고(辛), 시고(酸), 짠(鹹) 맛인데, 혀로 느끼는 그 오감을 벗어나 인생 후반전을 살아가는 새로운 맛은 ‘보람의 맛’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맛을 느끼며 살아가게 해주는 ‘사회공헌 활동’은 지금 내 인생의 한 장르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그 맛을 절실하게 느끼게 해준 것이 바로 해피시니어 교육과 함께 뜻밖에 주어진 ‘해피시니어 어워즈’였다. 그 ‘어워즈’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안내해주는 이정표였고, 길 잃은 나그네가 갈 길을 찾은 듯 내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다. 퇴직 후에도 얼마든지 삶의 의미를 재개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도록 했다.

Q. 현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감과 느낌 그리고 삶에 끼친 영향은?

이제 그 길을 한발 한발 앞으로 나가다 보니 어느새 사회공헌활동이라는 현장에 깊숙이 빠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데, 처음 필리핀공동체에서 4년 6개월여 동안 자원봉사활동을 했던 일, 2009년 5월 창립한 (사)희망도레미에 발을 담근 어언 3년 6개월이라는 시간들이 내 가슴 속에 파

노라마처럼 남아 있다. 그 많은 사연들을 생각만 해도 벅차오른다.

난 이제 큰 부자이다. 이름 없는 내 자서전이겠지만 쓸 거리가 아주 풍부해졌기 때문이다. 이제 그 결실로 몸담고 있던 (사)희망도레미가 서울시로부터 수탁 받은 사업인 ‘서울 인생이모작지원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앞으로 이곳에서 만들 더 많은 사연들이 내 자신을 풍성하게 해 줄 것으로 믿는다. 비록 경력이나 나이로 보아 벅차고 어려운 일이지만 열정으로 살아 온 내 삶의 한 페이지를 보다 더 아름답게 장식해 줄 것이다.

내 인생 후배님들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교육과 시니어의 다양한 사회참여를 위한 지원이 남은 일생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

Q. 시니어 혹은 사람들에게 전하고픈 말

‘줄탁동시’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한 마리의 병아리가 탄생하기 위해서 안에서는 병아리가, 밖에서는 어미 닭이 알껍데기를 동시에 쪼아 병아리의 탄생을 도와준다는 뜻이다. 나는 ‘퇴직자’라는 병아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 인생 이모작을 위한 인생설계 교육을 꼭 받으라고 권하고 싶다. 인생 이모작 삶에 대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는 것을 즉시 실행에 옮기는 용기와 추진력을 함께 만들어 낼 것이다.

죽음을 앞두고 뒤돌아 본 내용을 다룬 <인생수업>이라는 책에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간절히 원하게 될 것-그 것을 지금 당장 하라’는 뜻이 담겨있다. 퇴직 후의 시간을 부스러기 시간이 아닌 내 삶의 좌표를 다시 설정하고 새로운 색깔을 만들어 가는 시간으로 창조해나가는 것 또한 퇴직 시니어의 의무이기도 할 것이다.

성공적인 삶을 살아 온 경험과 노하우라는 명품을 자랑하지만 말고 그 명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명품인사가 되지 않겠는가? 시니어들을 위한 미답의 길이 너무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010년

제3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행복씨앗상 권병현



사막화방지사업과 녹색봉사단 운영, 한중청소년 대표단 특별 교류사업 등을 추진하며 미래숲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메마른 사막에 녹색장성을 쌓다

한 그루 나무를 시작으로 황무지를 아름다운 숲으로 가꾼 사람의 이야기가 있다. 누구의 땅인지도 모르는 불모의 사막에 파종을 거듭해 울창한 숲을 만들고 자연을 되살린 사람은 장 지오노의 걸작 <나무를 심은 사람>의 주인공 엘제아르 부피에이다. 부피에는 소설 속 인물로만 존재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주중대사로 부임하던 날, 북경공항을 가득 덮었던 황사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심하던지 와이퍼로 닦아내며 운전을 해야 할 정도였어요. 그날 저녁 서울에도 황사가 심하다는 딸아이의 전화를 받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구환경의 황폐화와 사막화를 저지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는 마음의 씨앗은 그때 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간 사막화 저지를 위한 나무심기운동과 한중 청소년 교류 사업을 펼쳐온 비영리단체 미래숲의 권병현 대표는 말한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감하고 지리산 근처 고향에 내려가 느긋하게 여가를 즐기고 가족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했던 그에게 북경공항에서 만난 지독한 황사바람은 또 다른 화두로 다가왔고 좀처럼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 이슈로 대두되고 기온상승을 유발하는 온실가스 문제가 스포트라



이트를 받고 있는 중이었지만 인간의 탐욕으로 야기된 토지의 황폐화, 사막화는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해보자는 마음으로 북경 근교의 민둥산에 나무를 심는 행사를 열고 중국 내륙지방의 사막에 나무심기를 시작했다. 중국정부에서는 지원은커녕 의구심에 가득한 시선을 보낼 뿐이었다. 그러나 지구환경을 보호하고 사막화를 저지하기 위해선 조림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과 누구든지 먼저 시작을 해야 한다는 절실함은 변함이 없었다.

“2001년 미래숲을 설립하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외교관으로 쌓아온 경력에 오점이 될 수도 있다는 주변의 우려와 만류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걱정스러운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를 인식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어렵지만 함께 나누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따르기로 했지요”

설립 이래 미래숲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나무심기와 인재양성을 통하여 지구환경 살리기를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다. 한중 대학생으로 구성된 녹색봉사대 활동을 통해 이미 400만 그루의 나무를 사막에 심었고 15km에 달하는 녹색의 만리장성이 만들어졌다. 사막화로 사라진 주변생태와 마을을 되살리기 위한 녹색 생태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작년부터는 전 세계인이 참여하는 ‘Billion Trees in Desert’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 하는 프로

그럼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되돌아보면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습니다. 기존의 권위와 가치를 버리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으니까요.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철이 늦게 들어서인지 몰라도 미래숲을 만들고 일구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신나고 재미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쉽게 느껴볼 수 없었던 감정들이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으니까요. 사막에 나무를 심는다는 말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던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들어 낸 사막의 푸른 숲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젊은 인재들이 지구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소의 걸음으로 천천히 국경을 초월해 나누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상생과 나눔의 실천이야말로 삶의 근원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행복이니까요.”

여기 나무를 심는 사람이 있다. 사막이 푸른 숲으로 황사가 맑은 공기로 될 때까지 나무를 심겠다는 권병현 대표에게서 우리는 엘제아르 부피에를 본다. 미래의 아름다운 숲을 본다. 사막의 모래에서는 이상하게도 숲의 향기가 배어 나오고 있다.

- (사) 렛츠 단원 이미영, <2010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10년

제3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새삶개척상 박병창



지역주민의 사회적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한 인천남동 생활복지센터에서 활동 후 현재는 주거복지연대에서 근무하고 있다.

쥐눈이 콩나물을 품에 안고 가는 길

한국일보 퇴직 후 행복설계아카데미 1기를 수료한 박병창 씨는 주거복지연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저소득층 일자리 상담과 어린이 공부방 개설을 위해 노력을 쏟아 부었고 인천남동생활복지센터로 옮긴 후에는 소득창출을 위한 콩나물 사업에 뛰어들었다. 거듭된 실패와 어려운 조건에서도 복지사업을 위해 애쓰고 있다.

마지막 발령을 받고 고민하다 후배들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라는 생각으로 30년이 넘게 일한 직장에서 퇴직을 결심했다는 그의 모습에는 이 시대 모든 가장의 초상,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지고 있었다. 실로 오랜만에 맛보는 휴식에 취해 있을 때 희망제작소와 우연히 인연이 닿았다.

처음으로 열린 행복설계아카데미를 수강하면서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 역시 또 다른 우연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주거 복지연대에 합류해 의정부 생활복지센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순간, 거듭된 우연은 필연이 되었다.

신문사에서 일할 당시 의정부 지역을 관리했던 경험이 있어 낯선 동네는 아니었다. 그러나 비영리기구에서 첫 걸음은 생각했던 것만큼 쉽지 않았다.

“처음 의정부에 갔을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게 무척 어려웠습니다. 나름 규모가 있는 조직이다 보니 저의 갑작스런 등장이 기존의 활동가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켰던 것 같아요.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한동안 낙동강 오리 알 같은 신세였지요. 하지만 오해란 풀리기 마련이란 생각으로 맡겨진 업무를 열심히 하다 보니 모든 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했지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상담을 도맡아 하고 저소득층 어린이 공부방 개설을 위해 동분서주하면서 마주한 지역주민의 따스한 눈빛, 해맑은 미소는 벽찬 보람으로 가슴에 다가왔다. 일년 남짓한 의정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위해 인천남동생활복지센터로 자리를 옮겼다.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위치한 인천남동생활복지센터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제공과 소득창출 사업이 시급했다. 어린이용 관상용 콩나물을 키워보자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 것이 본격적인 콩나물 재배사업으로 발전했다. 인프라가 전혀 없는 힘든 조건에서 시작한 일이 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일정비용을 지원받게 되면서 탄력을 얻게 되었다. 시설과 장비를 마련하고 시험재배에 들어가면서 일이 술술 풀리는가 싶더니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다.

“콩나물 재배를 너무 얄잡아 본 게 문제였어요. 물만 주면 쑥쑥 자라는 줄 알았으니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키우려는 쥐눈이 콩나물은 더 어렵더라고요. 첫 시도는 완벽한 실패였습니다. 재배법에 대한 공부도 하고 여기저기 견학도 하고 다시 해봤더니 처음보다는 나아졌는데, 그래도 부족했어요. 하루 24시간 때맞

취 골고루 물을 줘야 하는데 반자동 설비로는 한계가 있어 사람이 일일이 물을 뿌려야만 했습니다. 훌쩍 젖기가 일쑤였지요. 여러 차례 실패 끝에 마침내 쥐눈이 콩나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그의 눈빛이 밝게 빛났다.

재배에 성공하자 이번엔 유통망 확보가 숙제로 떠올랐다. 홍보를 해야 하는데 돈은 없고 별 수 없이 자전거를 타고 지역의 상가를 누비고 가가호호를 일일이 방문하며 쥐눈이 콩나물을 알리기 시작했다. 틈새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한 결과 몇 군데 판로를 확보하게 되었다. 하지만, 사업이 제 궤도에 오를 즈음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 갑작스레 끊기면서 또 다른 시련이 시작되었다.



“지원이 끊기자 일하던 사람들은 모두 떠났어요. 지금은 혼자서 콩나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지요.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든 적도 있어요. 그래도 주민복지를 위해 시작한 일이기에 힘에 부치더라도 계속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씩 수익도 나고 있으니 복지사업을 하는 날이 곧 오지 않겠어요. 세상에 쉬운 일이란 없잖아요. 시작을 했으니 끝을 봐야지요.”

주문전화를 받으며 콩나물을 담는 박병창 씨의 손길이 바쁘다. 투박한 손끝에 달려 있을 고단함을 뒤로 하고 배달에 나선다. 쥐눈이 콩나물을 품에 안고 가는 걸음마다 희망의 길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 (사) 렛츠 단원 이미영, <2010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10년

제3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행복나눔상 손홍식



2011년 4월 600번째 헌혈 달성으로 국내 최다 헌혈 기록을 갱신하였으며 만 69세까지 헌혈 횟수를 800번으로 늘리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서로 나누고 돌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헌혈 장기기증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손홍식 씨는 삼십대 중반 첫 헌혈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무려 575회의 헌혈기록을 갖고 있다. 그뿐이 아니다.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콩팥을 기증하고 간염환자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했다. 헌혈문화 정착과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에 노력하고 싶다는 그는 통계청 퇴직 후 요양보호사로 새로운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빛고을 광주로 향하는 길목에서 만난 하늘은 유난히 맑았다. 상냥한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으며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들어서자 헌혈 장기기증 홍보대사 손홍식 씨가 밝은 웃음으로 환하게 반긴다.

“처음엔 그냥 주사바늘에 대한 무서움을 이겨내고 싶었어요. 특별한 소명의식

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고 나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횡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헌혈문화가 일천했던 80년대 중반 첫 헌혈을 시작한 그는 현재까지 575회 헌혈로 국내 최다 기록을 갖고 있다. 횡수는 중요하지 않다지만 쉽지 않은 횡수라는 건 분명하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헌혈은 혈액 전체를 일정 양 뽑는 ‘전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성분헌혈’로 혈소판 또는 혈장 등 특정 성분만을 분리해 뽑고 적혈구를 비롯한 나머지 성분은 다시 돌려보내는 방식이다. 전혈의 경우 헌혈자의 건강회복에 걸리는 시간이 길며 성분헌혈은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

“90년대 초반까지는 전혈만 가능했어요.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분헌혈이 가능해지면서 혈소판 헌혈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혈병으로 고생하는 환자를 위해 제 혈소판을 나눠주었지요. 환자로부터 감사의 인사를 받은 적도 있어요. 그걸 바랐던 건 아니지만 무척 기뻐요.”

여러 가지 이유로 헌혈을 꺼리는 사람이 많은 게 우리의 현실이다. 오래된 고정관념과 공포심이 헌혈문화의 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최첨단 기술로 인간의 신체를 대신할 인공기관들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혈액만큼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혈액은 만들어질 수 없고 누군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 물건이 아닌 자신의 일부를 기부하는 형태가 ‘헌혈 Blood Donation’이며 조직기증으로 분류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헌혈은 가장 고결한 형태의 기부라 볼 수 있다.

헌혈로 시작한 그의 기부 여정은 장기기증으로 이어졌다.

“콩팥과 간 일부를 기증하기로 마음먹었을 때 별다른 두려움은 없었어요. 헌혈을 하면서 조직기증에 대한 이해가 넓어졌고 내 몸에 큰 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내의 반대가 있었지만 제 이야길 듣고는 이해를 하더



라고요. 튼튼한 몸을 물려주신 부모님에게 감사할 따름이죠.”

필요한 사람에게 조금 나누어 주었을 뿐이며 장기기증 문화 확산에 보탬이 되면 다행이라는 겸허함에 절로 머리가 숙여졌다.

오랫동안 몸담았던 통계청에서 퇴직한 후 그는 현재 광주 연화복지회에서 영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격일로 근무하며 하루 12시간씩 요양원에 계신 분들의 손발이 되어 목욕과 운동,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 드린다고 한다.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묻자 “언젠가 저도 부축해주고 씻겨줄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때까지는 제가 먼저 거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답하는 그의 말은 담담하지만 명료했다.

“나눔과 기부, 봉사란 그리 거창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지요. 서로 나누고 돌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지지 않겠어요.”

손흥식 씨가 몸으로 보여 준 27년의 그 ‘작은 나눔’은 우리에게 서로를 보듬는 부드러운 손길로, 따뜻한 미소로 다가와 마음 속 ‘깊은 울림’이 되고 있다.

- (사) 렛츠 단원 이미영, <2010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해피시니어와 나

권병현

미래숲 대표

Q. 나에게 해피시니어 어워즈란?

황량한 내몽고 사막에 나무를 심어 모래바람과 함께 사막화를 막겠다고 나선 한 늙은이에게 세상은 모두 ‘우공이산’이라 조롱하는데 한 NGO에서 ‘해피시니어 어워즈’란 상을 주었다. 희망제작소는 우리 사회가 오늘 가장 절실히 찾고 있는 ‘진실성과 믿음’을 갖추고 있다.

이 ‘진실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찾아 희망을 심어주면서 성공하고 있는 보기 드문 순수한 민간단체이다. 희망제작소가 주는 이 상은 녹색장성을 쌓아 사막화와 황사를 막겠다고 나선 ‘미래숲’이라는 민간단체의 노력에 ‘진실성과 믿음’을 보태 주는 ‘든든한 우군이자 보증인’이다.

유엔사막화방지기구가 이 노인을 ‘토지 지속가능관리 첫 챔피언’ 겸 녹색대사로 임명한 것은 사막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고 또 사막에 빼앗긴 마을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주려는 것으로 믿는다. 희망제작소가 준 상의 진실성도 입증된 셈이다. 이 노인에게 이 상은 진실성과 믿음을 잃지 않고 달팽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계속 노력하라는 ‘무서운 회초리’이다.

Q. 현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감과 느낌 그리고 삶에 끼친 영향은?

1998년 봄 주중대사로 부임하던 날, 서울에 있는 딸아이의 전화를 받았다. 북경을 댔친 황사가 서울로 날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 이듬해 봄부터 중국의 황

무지와 사막을 찾아 나무를 심기 시작했다. 공직을 떠난 후 2001년에 민간단체 ‘미래숲’을 창설하여 녹색봉사단과 함께 황사가 불어오는 중국의 서북부 사막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지 벌써 1년이 되었다. 무섭게 확대되는 사막을 막겠다고 내뿜고 ‘쿠부치’ 사막에 중국 공청단과 함께 녹색장성을 쌓기 시작한지 6년 만에 이 녹색장성 조성사업은 일단 성공을 거두었다. 지금은 녹색장성 조성에 그치지 않고 녹색장성을 중심으로 ‘지구살리기 녹색 생태촌(Eco-village)’을 만들고 있다. 사막에 빼앗긴 마을을 되찾는 사업이다. 중국의 칭화대학교 건축대학원이 생태촌의 개념설계를 하고 유엔기구들과 우리 정부, 민간 기업들 그리고 많은 회원들이 적극 후원하고 있다.

Q. 시니어 혹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나는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예전에 모르던 무서운 진실을 알게 되었다. 지구 지표면의 3분의 1 이상이 이미 사막화되었고 지금도 매년 남한보다 더 큰 땅이 사막으로 변하고 있다. 사막화는 자연현상이라기보다 인간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특히 내가 살아 온 20세기에 사막화는 더욱 심해졌다. 지구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게 되었고 이러한 지구를 자손들에게 물려준 것은 우리 기성세대들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이 점을 먼저 사과를 드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미래숲은 사막화가 나의 삶과 우리 후손들의 미래에 직결되어 있고,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으며, 사막에 빼앗긴 마을을 되찾을 수 있다는 걸 ‘녹색장성’과 ‘지구 살리기 생태촌 사업’으로 보여주려고 한다. 이제는 여러 동료 시니어들과 젊은 미래 세대들이 이 지구 살리기 사업에 동참하고 있다. 사막에 나무를 심어 지구를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나이를 뛰어넘는 신바람 나는 일이다.

2011년

제4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희망씨앗상 라영수



비영리 민간단체 은빛둥지 대표. 2012년 IT활용 우수프로그램 공모전(한국정보화진흥원 주최)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노인의 손이 마우스를 잡을 때

노인과 IT는 접점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178명의 할아버지 할머니 회원이 하루 종일 컴퓨터를 주무르는 곳이 있다. 여느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큰코다친다. 이들의 수준은 컴퓨터 관련 강사를 하고 특수효과를 사용하는 정도이다. 경기도 안산의 허름한 건물에서, 구색도 제각각인 컴퓨터와 노인들의 달라진 이야기는 라영수 원장으로부터 시작된다.

은빛둥지의 수장인 라영수 원장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문지기이자 앨리스 자신이다. 이곳은 노인들에게 IT를 가르치는 곳이다. 아니, IT를 가르치기만 할 뿐 아니라 영화도 만들고 만든 작품으로 돈도 벌어들이는 예비 사회적 기업이다.

은빛등지의 프로그램을 보니 여느 IT학원 시간표 못지않다. 한글과 컴퓨터, 포토샵 등, 36대의 ‘빈티지’ 급 컴퓨터는 노인 학생들의 느긋한 손길과는 달리 설새 없이 돌아간다. 라 원장의 말처럼 ‘사람이건 컴퓨터건 집기건 반쯤 죽은 것들을 모아서’ 모두 재활용하는 중이다. 그야말로 부활의 현장이다.

“자, 크로마키를 이렇게 하면 배경이 바뀌죠? 배경색을 더 진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래야 화면이 말끔해져요.”

마우스 위에서 딸깍대던 손을 멈추고 일제히 화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진지하다. 화면은 프랑스의 전원을 배경으로, 단풍이 환상적인 공원을 배경으로 계속 바뀌고 있다.

“노인들 178명이 매일 드나들며 컴퓨터 교육을 받은 지 한 10년 되었어요. 지금은 다들 컴퓨터 도사가 되었지요. 이렇게까지 될 줄은 나도 몰랐죠. 컴퓨터는 21세기 신이 노인들에게 내린 선물이에요. 힘쓸 일이 있습니까. 손가락만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라영수 원장은 취재진의 놀라움을 이해한다는 듯 느긋하게 대답했다.

경기도 안산 본오동의 허름한 건물 2층은 최첨단의 콘텐츠로 가득했다. ‘본인도 이렇게 확장될 줄 몰랐다’는 살림의 규모가 만만치 않아 보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곳은 대한노인회 뿐이에요. 나머지는 임의단체라서 공식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경로당이 대한노인회 소속인데 막걸리 값에 관광비, 냉난방비도 다 대줘요. 그런데 뭘 해 보겠다 하는 단체는 돈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시에서는 우리더러 대한노인회 산하단체로 들어가라고 권유하는데 그럴 수는 없죠. 우리가 그곳의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그럼 운영은 어떻게 할까.

“건물이야 시에서 무상으로 임대했지만 전기료, 수도세 등은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재 유지보수비가 만만치 않아요. 회원들에게 월 1만 원을 걷는 운영비가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는 공모전 출품작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 1월에도 일본 고베로 가서 소설 〈상록수〉의 주인공인 민족운동가 최영신 선생의 흔적을 찍었어요. 이 영상을 ‘민족의 상록수, 최영신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상록수영화제에 출품해서 최고상을 수상했어요. 강한 메시지와 사료적

가치 발굴을 높이 산 거죠. 사실 정신은 대상감인데, 영상미가 떨어져서(웃음) 대상에서 미끄러졌다고 하더라고요.”

라영수 선생과 IT의 인연은 가슴 아픈 개인사로 거슬러 올라간다. 20세기까지 그는 연해주, 간도 등지에서 스케일 크게 농사를 짓던 농업인이었다. 캄보디아 메콩강 유역 천혜의 쌀농사지대에 농지를 마련하고 대규모 농사를 지으려던 그 무렵 IMF가 시작되었다. 모든 외화지원이 중단되고 자금이 경색되자 그는 사업을 접고 눈물을 머금으며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귀국한 뒤,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다. 죽을 수도 없는 시간이었다. 그는 우연한 기회에 흥미를 느껴서 컴퓨터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때부터 도시락을 두 개씩 싸들고 안산 제1대학에서 주간에서 야간까지 총 12과목을 청강했다. 나중에는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서 문득 시간을 확인하니 3년이 지나 있었다. 그 학교는 2년제 대학이었다.

“그 후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을 하고 1천만 국민 정보화교육이 시작되어 동사무소마다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놓았어요. 마침 그 앞을 지나가는데 노인들 서너명이 컴퓨터를 기웃기웃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가르쳐줬던 게 인연이 되어 복지관에서 강좌를 열었죠. 30여 명이 몰려오더라고요. 그 후 여러 곳에서 강의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좀 더 조직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어 은빛둥지를 세워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을 하고 지금에 이르게 되었죠.” 복지관에서 공부했던 1기생 30명 중에서 이제 10여 명은 얼굴을 볼 수가 없다. 평균 연령 70대 ‘제자’들의 부고를 받는 일이 많아진 것이다. 60대 젊은이들과 아주 드물게 50대가 등장하기도 하지만 해마다 은빛둥지의 평균 연령은 올라가고 있다.

“여기 회장님(윤추자·여)도 아침 9시면 출근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지식을 나누고 하십니다. 아주 바쁘세요. 10년 전 이곳에 처음 왔던 아주머니들은 일바지 차림에 씻지도 않은 멍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던 분들이 점점 모양을 내고 자기를 가꾸어 갑니다. 나를 바꾸는 거죠. IT가 자기 변화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인들은 몰라도 나는 보면 압니다. 뭔가 열중하고 바쁜 스케줄에, 내가 변하고 남들이 변화하는 모델이 되는 겁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은빛등지는 2010년 평생학습대상을 수상했다. 노인들이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다. 변화는 살아있는 것의 본분이자 자기 확인 일 것이다.

“여기서 성공하면 세상 어떤 노인도 할 수 있다는 반증이 됩니다. 노인예겐 자기만의 경험이 있지요. 이것은 정보화시대 핵심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이것을 컴퓨터로 연결할 수 있다면 엄청난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예

를 들어 캄보디아 농사 데이터베이스는 제가 최고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수백만 명 노인들의 경험이 데이터베이스가 된다면 이만한 사회자원이 없겠죠. 최고령 사회를 생산적인 힘으로 변모시킬 열쇠를 우리는 IT에서 찾습니다. IT를 통해서 생산적인 노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나 기업이 할 수 없는 일, 변화의 모델이 됩니다. 이제 곧 업데이트가 가능한 영상 자서전을 만드는 수익 사업을 할겁니다. 관련 특허도 몇 개 받아놓았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노인들의 손으로 만들어내는 일이 곧 시작됩니다.”

- (사)렛츠 단원 이신숙, <2011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11년

제4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행복나눔상 남충일



기아대책본부와 서울의료원에서 자원봉사활동 중이며, 2012년부터는 지하철역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안내봉사를 함께 하고 있다.

봉사로 시작된 진정한 ‘종신 헌역’의 삶

일흔이 되어 본격적으로 시작한 봉사는 이미 1,500시간을 넘었다. ‘은퇴 후 스트레스’가 뭔지 모르게 해 준 자원봉사는 그에게 영원한 헌역의 자리를 허락 해주었다. 세상에 진 빚을 갚는 마음으로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현 중인 남충일 씨의 건강한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

“하루에 네 가지 이상의 일을 하는 날이 많아요. 그렇게 일주일 스케줄이 꽉 차 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은 봉사를 하고 다섯 과목의 공부를 합니다. 또 취미 생활도 하고 정기적으로 친구들을 만나 식사도 하죠.”

남충일 씨의 가방에는 클래식과 관련된 단행본과 전자사전이 들어있었다. 그의 관심사를 잘 보여주는 소지품이다. 기아대책본부와 서울의료원에서 영어

및 외국어 통번역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그는 지금도 외국어 공부에 열을 올리는 전문가이다. 은퇴 전 세방전지의 대표로 근무하던 시절, 일 년에 250번의 비행기를 타고 7개월씩 해외에서 업무를 보며 쌓은 실력이 지금의 그를 자원봉사계의 국제통으로 만들어주었다.

“은퇴 후 일흔이 되던 해에 우연히 강남자원봉사센터를 알게 되어 영어 팀에 등록을 했습니다. 기아대책본부를 찾아가 테스트용 편지 한 묶음을 받고 그 후로 지금까지 8년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하는 일은 우리나라 후원자의 편지를 영어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는 것보다 몇 배는 힘든 일이죠. 서울 의료원은 2008년부터 일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외국인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통역하는 일을 돕고 있어요.”

처음엔 나이 때문인지 시큰둥한 반응이었단다. 젊은이들도 어려워하는 외국어인데, 그가 과연 잘 해낼지 걱정스러워 한 것이다.

“사실 나에게 모국어는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입니다. 해방이 되고 열한 살 무렵 일본에서 귀국한 뒤 중앙대학 상과(商科)를 다닐 때까지 우리말이 어려워 애를 먹었지요.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일은 몇 년 전 수필가로 정식 등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자타공인 언어재능이 탁월한 사람이다. 일어와 영어는 물론 독학으로 독일어를 공부하고 그 길로 불어와 스페인어를 마스터한 뒤 지금은 중국어에 도전하고 있다.

이런 특별한 재능이 그를 자원봉사로 이끈 걸까. 사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의 마음 한 편에는 ‘빛을 갇아야 한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교포인 자신을 보듬어 키워준 대학과 세상에 빛을 갇아야 한다고 다짐한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 우리 물건을 유럽에 수출하는 일본 회사 한국지사에서 2년간 무급 사장으로 일한 적도 있다. 이것도 보국(報國)의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였다. 70세에 우연히 찾아 온 자원봉사센터와의 인연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되었다.

“저는 은퇴 쇼크가 뭔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 하고 싶은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은 거들떠 볼 겨를이 없이 바쁜 나날이

였죠. 은퇴하니까 그렇게도 아쉽던 시간이 생겼습니다. 누구에게나 24시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짧고 어떤 이에겐 너무 길죠. 유익하고 요긴하게 시간을 쓰게 하면 은퇴로 오는 심리적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년엔 그저 바빠야 합니다. 55에서 60세에 은퇴하는 것은 평균수명이 그 정도이던 시대에 만들어진 규칙이죠. 지금은 은퇴하고 30여 년이 더 남아있습니다. 은퇴 전엔 바빠서 후반 30년을 생각하지 못하죠. 미리 생



각해야하는데 사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예요. 현직에서 나오면 자원봉사센터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사회적 장치가 있었으면 합니다. 지하철에서 무상으로 표를 나눠주듯이 ‘은퇴하면 봉사’라는 고리가 조직화되고 제도화되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그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선 수혜를 입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우리나라의 위치가 변했다는 점이 놀랍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부자가 아닌 서민이라는 사실에 새삼 감동을 받았다.

“돈이 많은 사람이 후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 간호사, 군인 등, 서민들이 매월 3만 원을 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후원금이 내가 시작할 때만 해도 1년에 6백억 원이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은 3천억 원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일반 서민들이 돈을 모아 외국 아동들을 돕는 일인데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확산 속도도 무척 빨라졌고요.”

그는 봉사 정년을 여든으로 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

“뭐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게 없습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바쁘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면서 얻는 행복은 정말 대단합니다.”

- (사)렛츠 단원 이신숙, <2011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2011년 제4회 해피시니어 어워즈

새삶개척상 김정우



2012년 '제5회 세계인의 날' 을 맞이하여 다문화가정의 어울림과 상호 발전을 공로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였으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들과 함께 섬김과 나눔의 인생 2모작

제주도에서 국제적인 가족이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김정우 씨이다. 40여 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지난 10년간 섬김과 나눔의 삶을 몸소 실천한 그는 지금도 말 설고 물 설은 제주 외국인들을 돕느라 24시간 대기하는 삶을 산다. 제주도 토박이 김정우 씨의 헌신적인 삶은 특히 외국인에 대한 차별대우가 심한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 하는 큰 울림이 있다.

우리나라 어디나 다를 바 없지만 제주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는 일은 주로 양돈, 양계, 양식장, 플라스틱 제조공장 등 3D 업종이다. 결혼으로 제주에 등지를 튼 외국인은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여성이 많은데, 이들 역시 생활과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차별, 몰이해 등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유지하기 힘든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제주이주민센터장과 제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그는 이들을 위해 휴일과 명절을 반납한 삶을 살고 있다.

“2003년 2월에 제주 동여중 교장을 마지막으로 40년 교직에서 정년퇴임하게 되었어요. 퇴임식에서 ‘이제껏 동료 교사, 사랑하는 제자들, 학부모님들께 입은 큰 은혜를 갚을 길은 섬기고 나눌 길을 찾는 일이 될 것이다. 퇴직은 새로운 시작’이라고 퇴임사를 했어요. 그해 8월 1일에 서울 광주 등지에서 제주로 이주노동자 40여 명이 문화체험을 온다는 걸 알고 기꺼이 자원봉사를 자원했죠. 그들과 3박4일 버스여행을 하는데 그분들의 어려움을 체험하고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다 싶어 바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제주 외국인노동자센터를 방문해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없을까 알아보았다. 아는 만큼 보인다던가. 조직과 관리 측면에서 보강되어야 할 면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장학사 8년과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익혔던 관리 행정의 특기가 또다시 사회에 환원되는 순간이다. 또, 제주시청의 공모전에 이주노동자들에게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한국어, 태권도 등을 가르치는 내용을 응모, 1500만 원의 상금을 받아 한국문화학교를 세웠다.

2008년에 센터장이 되고 외국인노동자와 결혼이주민을 모두 돌보겠다는 의미를 담아 제주이주민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제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위탁 운영도 맡게 되었다.

그는 퇴근이 없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센터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막론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우선 ‘출동’하고 본다.

“노동자나 결혼이주민 모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대체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저임금인 그분들이 혹시 우리나라에 대해 반한 감정을 갖지 않을까 항상 조심스럽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이민자의 결혼생활 갈등과 이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체류기간이 만기가 되면 이혼한 경우 신원보증을 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불법체류자가 된단 얘기죠. 이런 경우 제가 신원보증을 서주는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국제적인 딸들이 많아요.”

외국인을 위해 봉사하는 동안 기막힌 사연을 많이 접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위태로운 순간도 많았다.

“금년 설에 양돈장에서 근무하는 태국인 노동자 차안시라는 분이 돼지 간을 먹고 균에 감염이 되어 한라병원에서 손가락과 양발을 자르는 심각한 사건이 있었어요. 치료비가 2천5백만 원이 나왔어요. 산재처리가 되면 좋겠는데 근무 중에 먹은 것도 아니고 근무시간 후에 자의적으로 먹은 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단 급한 대로 3백만 원을 모금했고 보험회사에서 1천5백만 원을, 본인 부담 약간과 병원에서 후원을 해주어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자국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여름이 좀 더웠습니까. 8월 한 달간 여덟 가정이나 이혼을 하겠다고 저를 찾아왔어요. 계속 설득하고 남편들 야단도 치고 해서 다섯 가정은 화해의 악수를 하고 돌아갔죠. 두 가정은 끝끝내 이혼을 했지만.”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것 때문에 차별대우를 받아 거기에서 모멸감을 느끼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다. “사실 이들 중에는 배울 만큼 배운 분들이 많거든요. 조옥란 씨라는 30대 초반의 조선족이 있는데 중국에서 3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로 시집을 온 분이에요. 상담간사로 성실하게 일을 하며 자원봉사를 열심히 해서 사례도 조금씩 하곤 했는데 방통대 졸업을 하고 통역대학원에서 한중 통역을 전공하게 되었어요. 제가 다음엔 사회복지를 공부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결혼이민자 중 귀감이 되는 사례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김정우 씨는 월급이 없는 ‘무급’ 센터장이다. ‘나는 연금생활자라서 넉넉하다’며 자신의 인건비를 센터로 귀속시키고 있다. ‘그래야 한 분이라도 직원을 더 둘 거 아니냐’고 하는 그의 비전이 궁금했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기회가 계속되는 한 이분들을 섬길 겁니다. 다만, 잘 아는 선교사 한 분이 파라과이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곳에서는 오전에만 수업을 합니다. 한국식 교육 시스템을 도입하면 훌륭한 학교가 될 것 같다고 현지에 와서 2년만 일해 달라는 그분의 말씀이 마음의 빛이 되어 여기를 그만 두게 되면 파라과이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 (사)렛츠 단원 이신숙, <2011 해피시니어 어워즈 자료집>에서

해피시니어와 나

라영수

은빛둥지 대표

Q. 나에게 해피시니어 어워즈란?

노인들과 하루 종일 12년이란 세월을 지내오는 동안 덤덤한 일상이었다. 그런데 2011년 말 나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희망제작소가 ‘희망씨앗’ 상을 준 것이었다.

시골의 한 작은 노인 단체에서 일하면서 세상 일을 잊은 지 오래된 노인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회단체에서 최고의 노인상을 준다니 믿어지지 않았다.

사실 인생의 마지막 길에서 노인들과 IT공부를 같이 하며 12년을 걸어오는 동안 수많은 상을 타기는 하였으나 그리 감동스럽지 않았다.

내 생애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인 2011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나에게 주제 넘는 영예였으나, 이 세상 노인들이 하지 못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 우리들에게 주는 격려의 박수라 생각하고 감사히 받았다.

Q. 현재하는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소감과 느낌 그리고 삶에 끼친 영향은?

‘노인들이 컴퓨터를 통하여 어떻게 아름답고 생산적으로 변할 것인가.’ 이런 화두를 가지고 우리는 12년을 씨름해 왔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아무도 없는 광야를 스스로의 생각과 경험에 의지하여 걸어오며, 이 길이 과연 올바른 길인

가 되물어 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단계를 거쳐 노인이 된다. 인생이란 ‘살아있는 사람’을 의미하며 삶의 각 단계별로 해야 할 일이 각기 다르다. 노인이라고 생의 할 일이 모두 끝이 난 것이 아니며, 노인이기 때문에 하여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곧 초고령 사회가 도래한단다. 엄청난 예산을 가지고 뒤흔드는 어느 국가도, 영민한 학자들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방안 마련에는 게으르다. 나를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노인들이 스스로 변하고 아름다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이다.

은빛둥지 노인들은 대부분 70~80세이나 세상과 소통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영상작업을 계속한다. 노인들이 세상을 뜨기 전에 이 사회에 하고자 하는 말을 영상에 담아 보내는 것이며, 마지막 사회적 의무를 영상을 통하여 확실하게 해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은빛둥지 노인들은 IT 기반 평생학습으로 얻은 결과물로 사회에 생산자로 참여하면서 행복한 여생을 꾸리고 있다.

Q. 시니어 혹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2011 해피시니어 어워즈를 수상한 이후 나를 비롯한 우리 은빛둥지 노인들은 우리의 경험을 모든 노인들과 함께 공유하기로 하였다. 여기까지 오는 데 우리는 10년을 투자했고, 또 다른 10년을 모든 노인들을 위하여 투자하겠다고 결의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모든 노인들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세상의 모든 노인들은 아름답고 생산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으나 그 방법을 모른다. 은빛둥지가 방법을 찾고자 나섰으나 시골에 있는 작은 노인 단체의 힘으로는 벅찬 일이다. 이 혼탁한 세상에 희망의 불길을 지피는 모든 해피시니어들이 함께 나서준다면 가능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어 본다.



새로운 해피시니어를 말한다



21세기의 새로운 시니어 리더, 해피시니어

이옥경 | 2011 해피시니어 어워즈 심사위원장.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얼마 전 공직에 오래 근무했던 한 후배가 좀 개탄스럽게 말했다. 퇴직 후 주위를 둘러보니 비슷한 연배에 좀 산다는 지인들의 일상이 영 마뜩하지 않다는 것이다. 해외여행과 건강돌보기, 재산보전을 위한 궁리에 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인 사람들이 많은데 앞으로 남은 몇십 년을 그렇게만 보내면 인생에 무슨 보람이 있느냐고, 자기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고 한탄했다.

그 후배가 접하는 지인들은 우리 사회에서도 아마 상당한 상류층이라 그런 수준의 일상을 보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 역시 각자 자신의 처지에 맞는 수준으로 비슷한 양태의 노후 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으니 이제 좀 편안하게 즐기며 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나 자신부터 음악 책 영화의 리스트를 차곡 차곡 쌓아두고 실컷 빠질 날을 고대하는 판이다.

그러나 매일매일 그냥 즐기기만 한다면 허무할 것 같은데 자기도 그렇게 살까 두렵다는 후배의 말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런 실천 없이 세월을 보내기 십상이다.

그런 점에서 해피시니어 어워즈 수상자들은 참 귀한 분들이다. 어워즈 심사에 몇 해 참가하면서 느낀 점이지만 열정과 용기와 의지가 대단한 분들이었다. 특히 희망씨앗상은 새로운 NPO를 설립하거나 분야를 개척하는 일인데 그러자면 새로운 발상이 필요하다. 대개 새로운 발상은 강한 선한의지가 바탕에 있어야만 나오는 것이지 않은가. 거기에 개척자의 용기까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후보자가 아직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지만 개척할 영역은 갈수록 늘어날 테니 차츰 대상자가 많아질 거라고 짐작해본다.

새삶개척상은 앞으로 참가자가 가장 늘어날 분야인 것 같다. 각 분야의 수많은

은 전문가들이 직장에서 물러나고 있는데 아직 창창한 노령(!)이다. 이분들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제공하는 활동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지역 균형발전이지 싶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이 지방의회에 직접 진출하거나 감시활동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다.

행복나눔상은 따뜻한 심성을 가진 분들의 헌신성이 돋보이는 부문이었다. 수상자들은 대개 이웃에 자신의 시간과 힘을 나누는데 거의 올인한 분들이었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 올인은 아니더라도 자신의 사정에 맞추어 자기 생활을 즐기면서 동시에 쉽게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다양한 나눔도 장려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수명 100세 시대’가 코앞에 와 있다고들 한다. 얼마 전 통계청은 한국이 2017년이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 2026년이면 고령인구가 20%를 웃도는 초고령화 사회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유엔이 정한 고령의 기준점이 65세라는 것이 현재 한국의 65세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다섯 명 중 한 명이 65세 이상이고 90세를 넘기는 장수 인구가 많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것은 이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구조가 달라지는 시대에 살게 됨을 뜻한다. 이제 인구의 15~20%를 차지하는 노령층을 더 이상 노령층 대접을 해서는 안 된다. 소비생활만 있는 세대, 시혜의 대상만 되는 세대로 취급하는 것은 개인도 허무하고 사회에도 짐이 될 뿐이다.

각종 선거에서 65세 이상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우리 사회의 방향을 결정짓는 시대가 이미 오고 있다. 물건을 하나 사려해도 품질조사라는 나름의 공부를 한다. 시니어들이 어떤 사고를 해야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더 살만해지는 것일까 하는 공부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해피시니어들의 사회공헌활동이 이런 방향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해본다.

해피시니어 어워즈의 새로운 전망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희망제작소는 은퇴 후 풍부한 삶의 경험과 전문성을 사회에 환원해 비영리 영역에서 제2의 인생을 펼치고 있는 시니어를 격려하고 지지하고자 2008년부터 해피시니어 어워즈를 제정해서 시상하고 있다.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보람된 인생후반전을 보내고 있는 시니어들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알림으로써 제2의 인생모델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총 13명의 수상자를 선정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현재도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부에서도 베이비부머의 사회적 자산을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일자리 형태의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2013년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사회변화의 흐름에 맞춰 새로운 변화의 모습을 준비하고 있다.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시니어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시상식으로 공공봉사 · NPO 활동 · NPO 창업 등 세 분야로 나눠져 있다. 이 분야 중 NPO 활동과 NPO 창업은 본 센터의 추진전략과 가장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특화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PURPOSE PRIZE(목적상)는 제2의 인생을 지역사회 · 건강 · 환경 · 교육 · NPO 분야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 시니어를 선발하여 10만 불의 상금을 주고 있다. 아직 규모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공공의 영역에서 희망의 씨앗을 만들고 있는 시니어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사회공헌일자리 활동을 안내함으로써 사회변화의 새로운 롤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단지 상금을 주고받는 기존의 시상형식을 벗어나, 시니

어가 만들고 참여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다. 시니어들이 만든 축제의 장으로서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서로를 격려하고 함께 즐기는 나눔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시니어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온라인 미디어를 구축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교감할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새롭게 변모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해피시니어 어워즈는 자기 혁신을 넘어 사회혁신을 확산시키는 시니어를 발굴하는 역할을 담당해 왔다.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하는 해피시니어를 만날 수 있도록 시니어사회공헌센터는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사진으로 보는
해피시니어 어워즈



2008 Happy Senior Awards





2009 Happy Senior Awards

2010 Happy Senior Awards





2011 Happy Senior Awards

building hope together

더 많은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당신의 희망을 나눠주세요.



희망제작소는

지역과 현장 중심의 연구를 통해 살아있는 대안을 만듭니다.
농촌과 지방을 살기 좋은 마을로 가꿔나갑니다.
소기업과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웁니다.
공공리더와 시니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시민의 변혁이는 아이디어를 사회혁신의 원동력으로 삼습니다.
1만명 시민의 힘으로 움직이는 시민참여형 연구소입니다.

희망제작소의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후원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각종 강연, 세미나에 초청합니다.
희망제작소 발간도서 구입 및 교육, 강연 수강 시,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후원회원을 위한 특별한 회원모임과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의 연간 사업 활동을 정리한 애뉴얼리포트를 매년 보내드립니다.

click



후원하기

후원회원 가입 문의 : 02-2031-2130 / give@makehope.org
후원계좌 : 하나은행 271-910002-36004 (예금주-희망제작소)



이 자료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와  **KYOBO** 교보생명 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시니어와 사회공헌, 행복한 동행

– 해피시니어 어워즈 2008~2011

만든이 박재승

만든날 2013년 4월15일

만든곳 희망제작소 시니어사회공헌센터

주소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290-11 비전빌딩 2~4층
110-847

전화 02-3210-0909

팩스 02-3210-0126

이 책은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 친환경용지를 사용했습니다.

